

한국체육철학에서의 중국철학의 수용과 전용

진현주(절강사범대학교)

1. 서론: 체육철학의 간략한 소개
2. 체육철학에서의 중국철학의 수용: 역사적 흐름
3. 체육철학에서의 중국철학의 전용: 변이의 환경
4. 결론: 중국철학의 현재성과 응용에 관한 통찰의 가능성

1. 서론: 체육철학의 간략한 소개

이 글은 체육철학이라는 영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시작으로, 체육철학이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학문 분과에서 중국철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전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체육철학은 체육학의 분과학문으로, 1972년 스포츠철학 심포지엄(The Symposium on the Philosophy of Sport)을 통해 발족한 세계스포츠철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ilosophy of Sport)가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를 1974년도에 창간하면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학문 영역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1991년 한국체육철학회가 창설된 후 1992년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가 창간되어 2019년 10월 현재까지 약 1,5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¹⁾

1) 한국의 체육철학이 세계스포츠철학회와 학문적 맥을 같이 하면서도 ‘스포츠철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체육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교육의 자장 내에서 자기 역사를 확립해 온 한국 체육학의 독특한 역사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의 체육학계에서도 체육 관련 연구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스포츠학’(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port studies’의 번역어)이 아닌, 과거부터 사용해 온 ‘체육학’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다. 체육학 내의 여러 분과학문 내에서도 각자의 학문적 상황과 의견이 달라, 인문학 분야(체육사, 체육철학)에서는 ‘체육’을, 사학과 철학에 비해 현대성을 띠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스포츠사회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심리학 등)에서는 ‘스포츠’를, 사회문화적 맥락이 아닌 인간 운동이라는 과학적 관점으로 체육학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분야(운동생리학, 운동역학 등)에서는 ‘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 분류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체육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자연과학 분야의 대표 분과에서 ‘운동의학’이 아닌 ‘스포츠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개별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스포츠철학’, ‘스포츠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체육학 분야의 인문학 분야를 대표하는 체육사와 체육철학이 대표적으로 ‘체육’이라는 용어를 고수하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앞서 언급한 한국 체육학의 독특한 역사로 인해, 과거의 것들을 많이 다루는 역사와 철학의 입장에서는 ‘스포츠학’이라는 표현으로 포괄할 수 없는 연구의 영역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포츠’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연구 대상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며 축소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분과의 공식 명칭과 상관없이 체육 관련된 연구 전반을 다루는 표현으로 여전히 ‘체육학’을 선호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그러나 ‘체육학’은 해당 학문의 범주를 오히려 애매하게 하며, 학문 분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결국 ‘스포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역사와 철학 분과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포츠사’, ‘스포츠철학’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보이지만, 이 글에서는 체육철학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신을 지칭해 온 ‘체육철학’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따랐다. ‘체육’과 ‘스포츠’의 사용에 대한 체육학 연구자들의 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진현주(2017)의 「어휘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체육철학 연구의 기획」의 1쪽을 참조.

한국의 체육철학은 2가지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역사를 경주해 왔다. 첫 번째는 학(學)으로서의 체육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철학이 물어야 할 존재론적 질문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십여 개가 넘는 개별 분과 학문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학문인 체육학이라는 거대한 클러스터 내에서 철학이라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첫 번째 목표를 위해 체육철학은 체육의 본질과 그 존재론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체육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다. 이 과정은 이미 체육철학의 연구를 앞서 시작한 영미권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에 많이 기대 있었기에, 초기의 체육철학은 자연스럽게 서양철학의 논의 구조와 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두 번째의 목표인 체육학 내에서의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체육학이라는 영토 내에서 자기 영역을 수호하기 위해 체육철학은 자신의 모학문(母學問)인 철학의 연구방법에서 출발하여 체육철학이라는 분과의 존재성을 지켜내려고 했기에, 각 연구자의 성향과 배경에 따라 다양한 철학의 이론들을 활용해 체육철학의 학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개별 철학자들의 사상을 체육의 시각으로 독해하고 그 안에서 체육적인 앎(physical knowing)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기존 철학의 사유를 통해 신체를 통한 지식(knowledge arrived at through the body)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거나 여기서 더 나아가 체육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작업, 이론을 다뤄왔던 기존의 아카데미아의 학적 전통과는 너무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체육학의 특징을 실천학으로 규정해 체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을 위한 학적 토대를 마련하여 체육학의 패러다임을 구성하려고 하는 연구의 시도 등을 통해 체육철학은 자신의 고유한 존재와 의미를 확보해왔다.

거개가 서양철학의 논의구조 위에서 진행되어 온 체육학 자체의 정체성 고민과는 달리, 체육철학의 두 번째 목표를 위해 드러난 이 다양한 방식에서는 중국철학의 사유가 발견된다. 체육철학의 소수성과 짧은 학문적 역사로 인해 동양의 이론으로 체육을 사유하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지양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동양학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로 인해 체육철학 내에서 중국철학에 대한 수용은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편이다.

2. 체육철학에서의 중국철학의 수용: 역사적 흐름

한국체육학에서 중국철학을 수용한 첫 세대로 비교적 장기간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자는 1975년에 발행한 석사학위 논문부터 도교적 체육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1999년에 『한국養生思想연구』²⁾를 출간한 이진수와, 퇴계 이황과 양명학으로 석박사 학위 논문을 쓴 권오륜³⁾이 대표적이다. 이진수는 체육사 분과에서 주로 활

2) 이진수, 『韓國 體育 思想史에 對한 考察』 3장 道敎的 體育思想.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진수, 『한국養生思想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동해은 연구자이긴 하지만, 양생사상을 오래 연구하였으며 도가사상과 무도와의 관계에 대해 천착해왔다. 이진수의 연구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연구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 형성’ 이란 체육원리(體育原理)의 대전제에 입각한 연구” 4)로, 그는 도가의 이론을 통해 체육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신체활동이 어떻게 도에 이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체육철학이 중국철학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그 의미와 효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의 연구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권오륜은 체육철학 분과에서 주로 활동하는 연구자로 체육철학에서의 중국철학의 수용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온⁵⁾ 주요 인물이다. 엄밀히 말해 이진수의 다음 세대 연구자이긴 하지만, 체육철학 분과에서는 그를 동양철학 연구자의 첫 세대로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한국체육철학 학술장에서 동양철학 사유의 중요성이 환기된 시점은 1994년 서울 국제 스포츠 과학 학술대회에 초청 연사로 참석한 체육철학자 클라인만(Kleinman) 교수가 서양철학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양철학을 제시⁶⁾했을 때이다. 그로 인한 영향인지 1995년부터 동양의 무도를 동양의 심신관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상당수 등장하기 시작했다.

동양무도의 철학적 기반을 탐색하는 연구는 꽤 많이 발견되는 편인데, 검도, 유도, 태권도 등의 무도 수련이 갖는 도덕적 실천의 의미, 무술의 수행에서 나타나는 미학적 측면, 지행합일을 지향하는 동양무도가 갖는 心身一如와 심신통일의 심신관, 동양 사상에 기반한 무도 훈련의 교육적, 체육적 함의를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 중 제일 활발하게 진행된 연구는 무도의 德에 대한 탐구, 禮로서의 무도 수행인데, 이는 점차 무도철학으로 개념화되어 무도학(武道學) 연구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해당 무술을 수행하는 연구 행위자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연구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무술 실천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지속성을 발견하는 것이 좀 힘든 형편이다.⁷⁾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된 결과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동양 무도와 중국 철학

3) 권오륜은 『퇴계 이황의 보건 체육 사상에 관한 연구』로 1991년 석사학위를, 『양명학의 신체사상에 관한 연구』로 1996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4) 이진수, 「도가사상과 일본무도」,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1권 2호, 2003, 5쪽.

5) 그 고민은 권오륜의 하단의 논문을 참조.

「체육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동양철학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38권 2호, 1999, 57-57.

「체육학의 동양철학적 접근의 과제 -氣이론을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0권 1호, 2002, 1-16.

「陽明學과 21세기 體育學」, 『양명학』 9호, 2003, 153-174.

「양명사상의 체육철학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44권 3호, 2005, 37-46.

「스포츠 윤리철학의 동양철학적 접근」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6권 4호, 2008, 59-70.

「스포츠윤리의 실천적 원리로서의 유학」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6권 3호, 2018, 39-50.

6) Seymour Kleinman, 『Somatic Education: A Holistic Approach to Physical Fitness, Health and Sports』 『대한체육회 국제 스포츠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4, 52-60.

7) 한국의 체육학 학술장은 체육철학과 무도학이 구분되어 있다. 연구자는 체육철학 학술장에서 성장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무도학에 대해서는 일천한 수준이라 해당 문장에 대해 완전하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까닭은 인간의 신체를 수행하는 영역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중국철학이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동양 무도의 중국철학과의 관련성 연구는 한국체육철학에서의 중국 철학 수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연구들의 존재가 체육철학 학술장에서 중국철학을 자연스럽게 체육철학 연구 방법의 하나로 인식하게 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체육철학 초기 중국 철학 수용을 고민했던 권오륜이나 김홍수⁸⁾의 연구가 중국철학을 동양철학으로 크게 범주화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차후에 등장한 많은 연구들은 중국철학을 자연스럽게 체육철학의 연구 영역과 방법 중 하나로 의식하고 있음을 보인다.

중국철학의 내용과 방법이 한국체육철학 학술장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유학과 관련된 연구도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는 양명학에 관련된 연구가 눈에 들어오는 편이다. 체육철학에서 중국 철학의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라, 중국 철학의 분류 체계를 의식하고 그 연구 전통 안에서 연구를 진행한 연구보다는 중국철학의 여러 과편들을 동양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철학과 대비하여 총체적(?)으로 사유하는 연구가 많은 편이다. 그렇기에 ‘양명학’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연구의 범주를 설정하는 연구가 눈에 띄는 듯하다.

양명학에 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무도학 연구와 겹쳐져 있기도 한데, 양명학의知行合一사상, 양명학에 내재한 신체사상이 체육철학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양명학의 철학사상에 내재한 체육적 가치를 규명하는 연구, 知行을 통해 무도가 갖는 武적 삶과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설명하는 연구,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미적 체험을 良志 개념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⁹⁾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윤리학이 체육철학의 주요 연구 흐름을 차지하게 되면서 동양철학과 스포츠윤리를 함께 사유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수는 적지만 가장 시의적 연구이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동양철학의 윤리적 가치를 통해 도핑 등의 스포츠의 비윤리적 현상을 해결하려는 시도, 스포츠윤리의 실천적 원리로서 유학을 사유하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¹⁰⁾

8) 김홍수, 「신과학 운동과 체육학(V): 동양체육학의 필요성」, 『제 36회 한국체육학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학술발표회논문집』, 1998, 43-45.

9) 양명학 관련한 대표 논문은 아래의 논문을 참조.
권오륜, 「陽明思想의 스포츠 미학적 탐구 -良志 개념을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8권 1호, 2000, 123-138.

김시연, 김동규, 「王陽明의 실천론과 萬物一體 사상을 기반으로 한 武道의 道德性 탐색」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8권 2호, 2010, 71-85.

10) 동양철학과 스포츠윤리 관련 대표 논문은 아래의 논문을 참조.
오경령, 장재용, 「동양무예의 윤리적 가치」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3권 2호, 2015, 79-104.

이승훈, 「동양철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도핑 문제(1): 반도핑의 정당성」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6권 3호, 2018, 19-28.

권오륜, 한동일, 김희섭, 김정효, 「스포츠윤리의 실천적 원리로서의 유학」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6권 3호, 2018, 39-50.

3. 체육철학에서의 중국철학의 전용: 변이의 환경

체육철학에서의 중국철학 연구는 실상 그 수용보다는 전용의 측면이 흥미로운 지점일 것이다. 번역은 직역(literal translation)보다는 의역(liberal translation)과 오역(mistranslation)에서 차이를 생산하기 때문이다.¹¹⁾ 거칠게 몇 가지의 예를 들자면,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은 氣수련이 실제 스포츠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이다. 인간으로 탁월하게 만드는 성질인 덕성을 위한 수련으로 해석되어 온 氣수련이 인간신체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스포츠의 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氣수련을 다른 각도에서 인식하고 해석하게 하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한 기존 동양철학의 연구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중국철학을 체육철학의 윤리로 호명하는 연구들도 차이를 통한 확장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스포츠윤리학은 체육철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향후 더 큰 발전이 예견되며, 언제나 현장에서의 실천 위에 기초하는 스포츠윤리학의 특징으로 인해 중국철학을 도모할 좋은 환경으로 보인다. 유가철학이 사전에 주어진 교리의 이수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진 도전을 잘 해결하는 것에 주력한다는 점, 도가철학이 실천과 함께 사유되는 점, 특히 장자가 수양과 훈련을 강조하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현대 스포츠의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성(dramatic)과 그 안에서의 행위자들이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만 그 실천에 이를 수 있다는 특징은 중국철학과 상당 부분 닿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역과 오역이 생성하는 섬세한 차이는 중국철학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연구자의 눈에 더 잘 포착될 것이다. 지면상 여기서는 전용의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우선 중국철학이 전용되는 환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학회와 석박사 학위논문의 발표장을 위시한 체육학의 학술발표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이 있다. 바로 “실제로 해 보았느냐?” “얼마나 해 봤는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가?” 이다. 이론을 다루는 공간에서 연구자의 실제 체험 여부를 검증하고 ‘운동 수행의 수준’과 ‘이론을 다루는 깊이’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질문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이 금기시되는 체육학의 학문 풍토에 기인하고 있다. 체육학은 현장에서의 지식을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에,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주류 체육학 연구자들의 태도는 현장에서의 체험지에 머물렀던 체육학의 지식을 이론의 장으로 올려놓아 ‘체육’을 ‘체육학’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확실히 공

11) 직역/의역/오역이라는 표현은 실제 번역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사용했다. 이 글에서는 수용-직역, 전용-의역/오역의 구조로 사용하긴 했으나, 실상 어떤 경우든 오역의 가능성은 동등하기에, 오역의 가능성을 양편 모두에 두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직역을 한다고 해서 다 오역의 위험을 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생성으로서의 오역에 주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본문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다.

현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확실한 공과(功課)는 그 그림자를 아주 크게 드리우는데, 이러한 체육학 학술장의 분위기가 연구자 유입을 사전에 제한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학부 교양 수업에서 우연히 배운 동양 무도학에 관심이 생긴 학생이 실제로 해 본 운동이 스키와 축구뿐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그 학생의 연구 대상은 스키와 축구에 머무르게 된다. 만일 그가 태권도나 유도의 동양철학적 의미를 연구하고 싶다면, 해당 스포츠를 실제로 수행하는 시간을 거의 반드시 거쳐야 원로들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감히 내가 해보지 않은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지 못하게 된다. 만일 시간을 들여 태권도를 수련하여 첫 연구를 잘 수행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태권도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할 뿐 선행 연구를 통해 여러 분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된다. 태권도 규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학에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정감의 체득을 연구한 연구자가, 후속 연구로 仁의 체득이 어떻게 禮로 표현되는가로 연구를 심층 확장하기보다는, 태권도 훈련의 교육적 의미나 태권도 도장 운영의 경제학적 효용 등의 연구로 연구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는 현장을 위주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문헌 연구 시에 직면하게 되는 언어의 문제, 철학에 대한 이해의 문제와도 당연히 관련이 있다. 이는 중국철학을 위시한 순수철학이 체육철학의 학술장에서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가장 큰 까닭으로 여태까지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이유이다. 순수철학을 모학문(母學問)으로, 체육철학을 자학문(子學問)으로 설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위계는 의역과 오역을 번역보다 낮은 위치에 위치시켰다.

그러나 체육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인한 연구 환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의역과 오역의 생성에 주목할 수 있다. 원래의 내용이 얼마나 그 원형대로 인식되었는가 보다는 전용을 통한 새로움이 기존의 사유에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을 자신의 주된 전공으로 생각하는 체육학의 일련의 연구 경향성은 개별 연구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자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주를 이루는 큰 이유를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연구를 시행할 때 있어서 연구의 방법보다는 연구의 내용에 더 치중하는 태도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태도가 환기하는 엄밀함의 부족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씨앗이 어떠한 형태로 꽃을 피웠는지에 대한 사유에 도달할 수 없다. 엄밀함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그것이 설사 오역에 기인하고 있을 지라도) 재구축된 사유, 즉 사유의 생명력이다.

4. 결론: 중국철학의 현재성과 응용에 관한 통찰의 가능성

한국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인문학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한국의 중국철학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자구책을 모색해왔다. 특히 20세기에 이르러 기존의 사회 전체를 지탱해 온 사상적 토대의 전환과 서구의 학문 연구 방법이 학계의 주류를 이루어 온 현실 안에서 중국철학의 고민은 더욱 깊었을 것이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중국철학이 중국철학의 전문 연구자가 아닌 타 분과의 연구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한국체육철학회지 내에서 발견되는 동양철학 관련 연구는 약 50여 편으로 체육철학의 주류 흐름은 아니다. 한국체육학회지, 대한무도학회지 등 여타 학회지에서 출판되는 연구와 학위 논문의 수를 포함하면 그 수는 몇 배 이상으로 늘어날 테지만, 2000편을 향해 가는 체육철학 연구물의 양적 숫자와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을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얼마 되지 않은 비중 가운데에서도 중국 철학 관련 연구는 공자와 맹자, 주자학과 양명학, 도가와 양생 등 나름의 다양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동양무도의 철학적 기반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시작되어, 중국의 철학을 통한 동양의 신체문화에 관한 연구, 양명학을 통한 실천지(實踐知)와 미학적 탐구, 유학을 통한 스포츠윤리학의 방향 모색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상당수의 연구들이 중국철학의 “과편”을 가져와 체육 상황에 접목시키는 연구로서, 이를 중국철학의 수용이라 이름 붙이기에는 약간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철학이 응용학이라 불리는 신진 학문 분과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은 중국 철학 내에서도 충분히 연구의 가치가 있다. 또한 체육철학 내에서도 중국철학의 전통에서 훈련받은 연구자와 소통해야 할 필요가 절실히 있다. 중국철학 전문 연구자가 체육철학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해 보인다.

지면의 한계와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이 발표문에서는 한국체육철학 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중국 철학 관련 연구를 다루지 못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더 자세한 분석,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후속 연구가 중국철학 전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철학이 철학과 큰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타 분야의 학문분과에서 어떻게 접속되어 다양한 것들로 변이되고 표현되는지를 통한 추적은 중국철학의 현재성과 응용에 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